

익산형 난임치료사업 호응

도내 최초 선도적 추진... 7년간 215명 참여, 성공률 34% 내년부터 지원대상 남성까지 확대... 출산율 증가 기대감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며 난임부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인구 늘리기 대표 정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5일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난임 여성 30명에서 남성 30명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방요법치료 한의원에서 3개월에서 4개월간의 한약제 복용 및 침 뜸 등의 한방요법으로 난임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따라 임신 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임신을 향상을 높이고 있다. 지역 출산율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215명 대상자 중 73명(33.9%)이 임신에 성공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방치료를 통해 임신 유도 및 난임시술 효과성을 높여 지역 출산율 향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난 30일 익산 원광대병원 의료융합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챌린지 시상식(윤권하 병원장 맨 앞줄 중앙).

원광대병원, 인공지능 챌린지 성료

캐글서 진행, 22개 팀 참여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의 의료융합연구센터(센터장 윤권하)는 최근 AI(인공지능) 개발 고수들의 경연장이라 불리는 '캐글(<http://Kaggle.com>)'에서 2020 Body morphology AI segmentation Online Challenge(인체형태 예측 인공지능 분할 온라인 챌린지)를 진행한 후 지난 30일 의료융합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3차에 걸쳐 진행된 본 챌린지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인 '인공지능 Body Morphometry(인체형태 예측) 기반 융합임상연구를 위한 클라우딩형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챌린지의 목표는 CT 영상에서 근육과 지방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이미지 분할 기술 개발 및 정량적 평가 수행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 개발 활성화이다. 이는 원광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공동 연구 주제(Body Morphometry(인체형태예측) 중 하나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번 챌린지는 주어진 CT 영상을 다양한 방법(전처리와 Augmentation(증가)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적용)을 통해 성능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재현성 평가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챌린지에는 총 22개 팀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1등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대학원생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AIM Lab팀이, 2등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방사선 의과연구소 TAILab팀이, 3등은 숭실대학교 HnL팀이 수상했다. 1등을 수상한 AIM Lab팀의 장승운 발표자는 "비록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며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선별된 CT Dataset과 리셀을 통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유심히 관찰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

전시체험시설 '글로벌문화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 등

익산시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다문화 전시체험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남중동 교복거리에 위치한 글로벌문화관은 연면적 1,480㎡,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음식점, 카페, 유아방, 2층은 나라별 전시관, VR체험관, 의상체험실, 유아강의실, 3층은 요리체험실, 자조모임실, 수유실, 교육실, 사무실이 들어선다. 이곳을 방문하면 8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꾸며

진 전시관에서 결혼이민자가 설명하는 각 나라의 역사, 전통의상,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체험실과 다국어 회화 교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전체 인구의 3% 이상인 도시가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 도시 간 협력하고 다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중앙부처에 정책을 건의하며 다문화관련법 제·개정안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장 직속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지원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필품이나 지역 특산품을 보낼 때 소요되는 국제운송비용과 출산 및 양육 등 친정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892명에게 8,92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전공별 직무 맞춤형 기업탐방 실시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와 취업지원과는 최근 전공별 직무 맞춤형 기업탐방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들과 지역 내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취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내 유망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탐방기업은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사업단지 안에 있는 두리전주공장(SEO계열사)으로, 두리전주공장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자동차 엔진부품제조 및 수출기업이다.

참가 학생들은 기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에 이어 직무 및 해당 채용요건, 근무현장 탐방 및 현직자 인터뷰, 인사담당자와의 Q&A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지 못했던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도내 중견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학 관계자는 "전공별 직무 맞춤형 기업탐방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장점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인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와 취업지원과는 최근 전공별 직무 맞춤형 기업탐방을 실시했다.

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취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회현면 이장단,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한해 경작해 얻은 수익금을 십시일 반으로 모아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전한 단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회현면은 면 이장단(회장 강희영)이 지난 4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경작해 얻은 수익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회현면 이장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한마음으로 적극적인 방역활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모범을 보여왔으며, 사태가 장기화되자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기탁했다. 강희영 이장단협의회장은 "겨울이

다가오는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현면 이장단은 평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년 성금을 기부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바 있다. 강희영 회현면장은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저출산 문제 극복 건강관리 비용 확대 지원

익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임신부에게 건강관리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5일 임신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1회당 지원금액을 4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은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280일 동안 소요되는 건강관리비를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당초 28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익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이다. 다만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타지에 주소를 두고 군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 화재 취약지 현장 방문 안전 컨설팅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주)두산전자 등 동결기를 맞아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 방문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위험물 저장시설은 가연성 증기 발생으로 화재·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으로 위험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서는 최근 팔봉동에 위치한 (주)두산전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두산전자 사업장은 위험물 저장 품목중 상당수가 위험성이 높은 제1석유류 및 알콜류를 저장·취급하고 있어 부지내 저장·취급 중인 위험물의 배수가 지정수량 588.9배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